■광주시장 후보에 듣는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광주정신 살리고 소득 3만불시대 열겠다"

-반민주당 연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구청장 후보를 내놓고 있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구체적 연대 방안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명박(MB) 정권의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기 위해 민주·개혁·진보세력이 뭉쳐서 맞서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대적 책임보다는 밥그릇 싸움과 텃밭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후보 단일화를 이뤄 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MB정권의 독선과 아집을 깨뜨릴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첫 과정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모셨던 이병완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룬 것이다. 이를 발판 삼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연대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정책 연합을 통해서 선거 연합을 이뤄야 한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 많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버리고 노력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몇몇 시민운동가들이 민주당 옷을 입고 정치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정치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운동가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민운동가들이 정치현실에 뛰어드는 것을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 실천과 생활정치를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다만, 당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맞는지 숙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보다는 험난한 길을 택한 동지들에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헤쳐나가기를 당부하겠다.

-후보가 제시하는 광주의 비전은 무엇인가. 10년 후의 광주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광주시민은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시민이지만 행복하지는 않다. 광주의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지역내총생산 꼴찌, 생활경제 만족지수 꼴찌, 사회통합지수 꼴찌다. 반대로 어음부도율 전국 1위, 형사범죄 입건율 1위, 교통사고 발생률 1위다. 내가 꿈꾸는 광주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다. 잃어버린 '광주 정신'을 되찾고 새로운 광주를 위한 혁신적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혁신광주·행복광주·예향광주·창조도시·희망광주·참여광주 등 새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하겠다. 이를 통해 광주는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 것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통해 5만달러 시대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친화적 개발을 통한 녹색도시가 될 것이다. 광주의 정신과 문화유산이 살아있으며 약자가 존중받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광주시의 당면 현안은 무엇인가. 임기 4년 동안 중점 추진할 정책은.

▲첫째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능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80만대 수준으로 증설을 추진하겠다. 생산능력이 50만대 수준을 넘어서면 엔진이나 섀시를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큰 대형 협력업체들이 들어선다. 80만대 수준이면 300~500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광주에 모이고 3만~5만개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된다. 둘째로 부시장급 등 많은 자리에 시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대거 영입, 광주시정을 혁신하는 행정시스템을 만들겠다. 지금 광주는 소통의 부재가 심각하다. 참여와 소통의 행정이 어우러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가 맘 놓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무료 급식과 학습준비물 무료 제공 등 여러 정책이 준비돼 있다. 넷째,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 점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겠다.

-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심 이반도 상당하다. 호남에서 국민참여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광주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밀어줬다. 이는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광주시민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농락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경선 중 단 한 곳이라도 문제되지 않은 곳이 있었나.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반칙과 불법이 난무한 경선이었다. 국민참여당은 광주에서 민주당이 아닌 정당으로서 시민경선을 통해 최초로 후보를 선출하는 역사적인 경험을 했다. 또 광주에서 최초로 비민주당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에서 국민참여당은 수렁에 빠진 민주당의 대안이 돼야 한다. 정정당당한 대결을 통해 광주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찬용 신상 메모

출생	영암
본관	하동
신체	172㎝, 68㎏
학력	비아초, 송정서초, 서중·일고, 서울대 문리대 언어학과 졸업
주요경력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 전 외교통상부 대외직명대사 전 현대기아차그룹 인재개발원 사장 전 여수엑스포 유치위 상임부위원장 전 KTV 정찬용의 정책포커스 진행 전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현 (사)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장 현 시민주권 상임운영위원 현 노무현 시민학교 광주학교장 현 도랑살리기 광주전남본부장
가족	아내, 1남 1녀
재산	2억원
종교	기독교
취미	산책, 판화
좌우명	겸손하고 당당하게
애창곡	사노라면
쉴때 가족들과 하는 일은	마을 뒷산 오르기(산책), 집 마당 풀뽑기
아내에게 주로 하는 말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로 하는 말은	잘나갈때 겸손하고, 어려울때 당당하자
좋아하는 연예인	임현식(탤런트)
좋아하는 음식	콩나물 국밥
좋아하는 여행지	지리산(등산)
가장 아끼는 소장품	만년필
별명	질모(바보라는 뜻)
저서 혹은 논문	'사회복지 대학생들의 길' '함께 꾸는 꿈'
존경하는 인물	김용근 선생님(고교 은사님), 백범 김구
주량/흡연	소주 1병
홈페이지	www.chanyong.net
이메일 주소	ceojcy@hanmail.net

정찬용은 누구

서울대 졸업 직후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음해 형집행정지로 출소, 경남 거창고 교사를 지냈다. 1982년부터는 거창에서 10년 동안 YMCA 활동을 했으며 1992년부터는 광주로 와서 YMCA와 누리문화재단 등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펼쳤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2년 동안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을 지냈으며 이때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인연을 맺어 2008년 현대기아차 인재개발원장을 맡기도 했다. 광주·전남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서남해안포럼을 만들어 '서남해안특별법'을 만드는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선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 생산능력 80만대로 증설
무료급식·구도심 활성화 추진
민주개혁진보세력 후보 단일화
MB정권 독선·아집 깨뜨릴 것

'5월의 노래' 합창…대동 한마당

21일 '광주 시민의날' 기념축제
하계 U대회 유치 1주년 행사도

광주시가 올해부터 새롭게 제정된 5월21일 시민의 날과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1주년을 기념해 시민축제를 연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날인 오는 2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공원에서 5개 자치구 주민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역의 전통놀이인 대동놀이, 고싸움, 자치구 대항 체육·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 약식 기념식으로 대신했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 것이다.

시민의 날은 지난해까지 직할시 승격일인 11월1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지난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에서 철수한 오는 21일로 변경된 바 있다. 광주시는 시민군의 단결된 힘으로 계엄군이 물러난 시점을 시민의 날로 변경한만큼 시민의 날에 '5월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같은 날 옛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5월 창작가요제'를 5·18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5·18 추모기간에 열리는 시민의 날에 이를 기념할만한 이벤트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시는 또 이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1주년 기념 행사도 벌일 예정이다. 제1부 시민의 날 기념식에 이어 열리는 제2부 유치 1주년 기념식은 경과보고(영상 자료)·기념사·축하 및 성공개최 영상 메세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지길리안 FISU 집행위원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대학생, 시민 등이 축하 영상메시지를 보내 대회 성공을 기원한다.

앞서 지난해 5월24일 광주시는 캐나다 애드먼턴, 대만 타이페이와 경합 끝에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성공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10년전 파리박람회 한국관에는…

여수박람회 조직위 자료 공개

'원색으로 칠 되고 극동의 미를 살려 가장 자리가 살짝 들린 큰 지붕을 덮은 이 순수 목재건물의 매력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 이하 조직위)가 우리나라가 세계박람회에 한국관을 건설해 최초로 참가한 1900년 파리박람회 자료와 사진을 입수하고 최근 이를 공개했다.

조직위가 공개한 자료는 1900년 프랑스 '프티 주르날'에 실린 한국관 관련 기사로, 최근 방한한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이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조직위에 기증한 것이다.

당시 한국관에는 실내복, 관복 등 의복, 부채, 담뱃대, 머리띠 등장신구, 나전칠기, 병풍 등 가구, 생강 분쇄기, 농경기구 등이 전시됐으며, 불경과 팔만대장경, 삼국사기 등 목판인쇄물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기사자료에는 공식책자에서 볼 수 없는 당시의 평가도 담겨있어 우리 전시물이 어떻게 비춰졌는지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프랑스 신문인 '프티 주르날'은 당시 한국관 전시물이 "국왕이 직접 보내온 값진 수집품들과 한국에 거주했던 프랑스인 소유의 소품들, 그리고 한국산 제품들이 세련되게 배치돼 있어 한국의 자원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강하게 심어준다"고 평가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1900년 당시 프랑스 '프티 주르날'에 실린 한국관 모습과 관련 기사.